

수정초등학교 4학년3반 3번 김규혁

## 강낭콩 씨앗

강낭콩 알 하나가  
우리 집에서 자라고 싶데

영양분을 쪽쪽 쪽  
빨아먹고 있어요

내 동생  
엄마 젖 먹지요  
쑥쑥 쑥 크고 있어요.